

지역 매 아리



부안군보건소,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추진

부안군보건소는 100대 국정과제이며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며 어르신들의 생활거점인 경로당이나 지역사회 연계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와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서비스는 건강행태개선, 민성질환(암, 심·뇌혈관 질환 등) 예방 및 관리, 계절 및 자연재난 시 재난도우미 역할 수행 등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취약계층 9557가구가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9527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유기철 대비 예찰 활동 전개

정읍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은 27일 유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급경사지와 옹벽에 대한 예찰 활동을 전개했다.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은 선제적인 재난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리 지역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2015년부터 자발적인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

예찰 활동에서 백인출 민간예찰단장은 "부영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사이의 옹벽 구간은 집중호우 때마다 산에서 토사가 도로로 쓸려 내려온다"며 더 큰 재난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예찰단은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은 휴대폰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기자

일상 속 작은변화로 행복감 UP

유기상 고창군수 취임 1주년 맞아 성과 정리 "초심 잃지 않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

유기상 고창군수가 27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1년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군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유기상 군수는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해 "3천년전 고인돌 시대부터 위

대한 문명을 이룩해 온 고창군의 자긍심이 높아진 점"을 제1성과로 꼽았다.

앞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 브랜드는 올 초 중앙일보 주최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민선 7기 고창군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비전으로 '농생명 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의 2축을 설정했다.

유 군수는 "고창군은 토종 종자를 살리는 조례를 제정했고, 최근에는 GMO작물 재배를 억제하는 조례도

준비 중이다"며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면서, 고창 농산물은 '건강하다', '착하다',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서울에서 열린 '소비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멜론과 땅콩이 농·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그 맛!

고창 멜론·땅콩, 품질만족 대상 수상 신기술 보급·고급화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달콤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고창멜론, 고소한 식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고창땅콩이 전국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열린 '2019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멜론과 땅콩이 지역 농·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멜론은 3년 연속, 땅콩은 2년 연속 수상으로 '한반도 농생명수도'의 가치를 드높였다.

달콤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고창멜론, 고소한 식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고창땅콩이 전국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고창멜론은 미네랄과 원적외선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며 안정된 재배기술과 많은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다. 또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직거래 재구매율이 80%가 넘는 농가도 있을 정도다.

고창군은 명품멜론 생산을 위해 농촌개발대학에 '멜론과'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각종 교육과 기술지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창땅콩(재배면적 400ha)은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며,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고소한

맛과 선명한 표피 색깔로 국산 땅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군은 기존 알팔롱 위주의 생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원 개발 위해 땅콩(새싹)의 소아사포닌(콜다공증 개선), 라스베라트톨(항암 효과), 아스파라긴산(숙취해소) 등의 기능성 성분에 주목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업인들의 땅과 정성, 노력이 가득 담긴 고창 멜론과 땅콩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마케팅을 통해 고창 멜론과 땅콩을 전하세일의 특산품으로 육성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실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내달 6일 개장

정읍시 대표 물놀이 시설인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다음 달 6일 개장한다.

물놀이장 주변 안전시설과 바다슬라이드를 보수하고 생태공원에 국화꽃 식재하는 등 물놀이장을 새롭게 단장해 이용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칠보물테마유원지는 태산선비문화 중심지인 칠보면 무성리 부지에 2층 규모의 물테마전시관을 비롯해 물놀이장과 유상대, 바다 분수대, 인공폭포, 생태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물놀이장은 무성서원과 태산선비 문화사료관 등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청정호수인 옥정호 물을 이용해 깨끗한 수질로 유명하다.

물놀이장에는 2천30㎡ 면적의 어린이풀장과 유아풀장이 들어서 있다. 또 바다슬라이드와 워터터널, 워터스프레이 등 각종 놀이시설과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물놀이장에는 연간 5만여 명의 물놀이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시는 안전을 고려해 수상 안전요원과 응급처치사를 상시 배치하고 물놀이 시간 50분 후에는 휴식시간 10분을 운영할 계획이다.

물놀이장은 내달 6일부터 이틀간 주말에 조기 개장한다. 내달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일자리 창출로 정읍경제에 '활력'

정읍시, 탈렌티스·아주산업과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정읍시가 27일 (주)탈렌티스(대표이사 정지영), 아주산업(대표 박종익)과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주)탈렌티스 정지영 대표이사와 임원, 아주산업 박종익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탈렌티스와 아주산업은 투자협약을 통해 2020년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8147㎡(2464평) 부지에 약 3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탈렌티스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해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광케이블·광통신 부품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4248.7㎡(1286평) 부지에 28억원을 투자, 신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성장하는 통

신 산업 시장에 대비해 수출 물량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주산업은 소성면에서 축산 기자재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3898.3㎡(1179평) 부지에 10억원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읍 지역에 있는 2천여 이상의 한우·돼지 사육 농가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축산 관련 분야의 신규 이전 기업들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섭 시장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해주신 (주)탈렌티스와 아주산업에 감사드린다"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협약

부안군은 27일 (주)한미엔텍 및 (유)대신환경개발과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폐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동진강으로 배출하는 농공단지 폐수를 물환경보전법

에서 규정한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 정화해 공공수역에 방류하고 부안군과 폐수배출기업, 폐수처리장 위탁업체가 협력해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수질오염 원인 공유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질오염 예방 등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long with product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